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2, 411 - 428

성인애착유형과 결혼, 이성교제 경험, 상실의 경험여부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임 정 선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Hoeger와 Buschkaemper(2002)가 독일에서 개발한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성인의 애착유형 분포를 확인하였고, 이와 애착유형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결혼여부 및 이성교제 경험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실의 경험과의 연관성과 관련변인들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특히 측정도구로 사용된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는 성인의 애착유형을 연속적 차원에서 분류하는 도구로써 애착유형을 세 범주로 제한하지 않고 세분화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 성인의 애착유형으로 안정애착, 불안정-양가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정-회피-단편 애착 등 네 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애착유형의 분포는 연령, 결혼여부, 이성교제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을 했을 때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안정애착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어 : 애착, 성인의 애착유형, 이성교제 경험, 상실의 경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대인관계가 강조되고 인간관계인 엄마¹⁾와의 애착관계는 미래 대인관계
원활하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방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타인과의 최초의
엄마와 아동의 분리에 관심이 많았던 Bowlby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정선,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Tel: 053-580-5425, E-mail: jslim@kmu.ac.kr

1) 본문에서의 엄마는 일차적 양육자를 의미한다.

(1907-1990)는 세계 제 2차 대전 직후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의뢰로 전쟁으로 가정을 잃은 아동들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애착이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Bowlby(1969)는 아동이 엄마와 분리 될 때 보이는 정서적인 고통과 저항행동을 통해 엄마와 아동과의 특별한 정서적인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별한 정서적인 유대를 애착으로 개념화하면서 인간의 타인관계에서 특별한 정서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애착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애정적인 유대로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대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정서적 끈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임정선, 2007).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애착대상과의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착행동을 보이며, 특히 공포, 두려움, 질병 등 보살핌이나 배려가 필요한 내적 및 외적 위협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애착대상을 찾고 그 옆에 가까이 있으려는 애착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난다(Bowlby, 1969, 1973).

아동은 반복되는 엄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Bowlby(1969, 1973)는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s)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은 성인의 애착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이다. 내적 작동 모델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계대상을 감정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포함하며, 관계대상의 행동을 해석하고 예측 할 수 있으며, 관계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한다. 아동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은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이것이 내적 작동 모델이 변화하지 않는

고정적인 모델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반대로 내적 작동 모델은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삶의 경험과 결과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삶의 경험과 결과들 모두 내적 작동 모델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wlby, 1995; Fremmer-Bombik, 1997; Bretherton, 2001).

애착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은 죽음으로 인한 부모의 상실, 부모의 이혼이나 부모와의 이별, 중병, 부모나 아동의 사고와 같은 위험요인의 발생여부와 그것의 빈도이다. 한 개인이 가족 체계나 엄마-아동 관계에서 위와 같은 지울 수 없는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애착유형은 70-80%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immermann, Becker-Stoll, Grossmann, Grossmann, Scheuerer-Englisch & Wartner, 2000). 다시 말해, 내적 작동 모델이나 그것을 기초로 형성된 애착유형이 평생토록 불변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대상으로부터 어떻게 정서적으로 지원 받는가에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이성교제 경험이나 결혼생활을 통해 불안정애착에서 안정애착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치료와 같은 치료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통해서도 안정애착으로 애착유형이 변화될 수 있다(Bowlby, 1995).

성인기의 애착을 살펴보면, 애착행동이 아동기 처럼 가시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슬픔, 상실, 이별, 질병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에서는 애착행동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Bowlby(1980)는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정신적인 건강함과 작동하는 인격의 표시이기 때문에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행동을 퇴행이나 종속적인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인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연인)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되면서 연인이나, 남편과 아내가 일차적으로 중요한 애착인물이 된다(Bowlby, 1980; Ainsworth, 1989, 1991; Hazan & Shaver, 1987; Holmes, 2002). 애착관계로써 부부(연인)관계는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일과 탐구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막의 역할까지도 한다(Holmes, 2002). 부부(연인)관계에서의 애착행동들을 살펴보면, 아동과 비슷하게 육체적 근접함을 찾거나 유지하려고 하고,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위로를 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애착행동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사별, 이별이나 상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부부(연인)관계를 애착관계로 보는 근거라 할 수 있다(Ainsworth, 1989).

아동의 애착양식을 성인의 애정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Hazan과 Shaver (1987)였다. 이 후 성인의 애착연구가 활성화되어 많은 이론적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애착이론이 성인의 애정관계 뿐만 아니라 성격발달, 정서조절, 심리적 장애 등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Hazan과 Shaver (1987)는 성인의 애착유형을 Ainsworth, Blehar, Waters와 Wall(1978)이 아동에게서 분류한 바다로 안정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양가애착의 3범주로 분류하였다. 각 애착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며, 자기를 개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 또한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사랑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상대방을 신뢰하며, 관계에

서도 우호적이며, 행복감과 만족감이 크다(Hazan & Shaver, 1987). 이에 반해 불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애착관계나 다른 사회적 관계에 있어 신뢰가 적고, 자신의 애착욕구가 불만족스럽게 채워질 것을 진제하면서, 자신을 지원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하다고 간주한다(Hazan & Shaver, 1987; Mikula & Leitner, 1998). 그 중 불안정-회피애착의 사람들은 신뢰가 적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리를 유지하며, 사랑에 빠지기 어렵고 정열적인 사랑은 더욱더 어렵다(Hazan & Shaver, 1987; Bierhoff & Grau, 1999). 불안정-양가애착의 사람들은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질 때 안정을 느끼고, 애정을 찾으려고 하나 상대방이 자신만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관계 그 자체에 더욱 집착하고 몰두하는 경향을 보인다.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상대방을 이상화하며,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기 쉽고, 질투도 많으며,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Hazan & Shaver, 1987, Feeny & Noller, 1990). 배우자(연인)의 선택을 보면,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은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두 사람의 애착유형이 모두 안정애착 유형인 경우가 가장 많다(Kirkpatrick & Davis, 1994). 안정애착 유형에 속하는 두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는 다른 애착유형이 서로 만났을 경우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두 사람이 모두 불안정애착 유형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이 불안정-양가애착이고, 다른 한명이 불안정-회피애착 유형인 경우가 많다(Bierhoff & Grau, 1999). 관계유지 기간을 보면,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은 관계를 안정적이고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서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해 불안정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Hazan & Shaver, 1987).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성인의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여러 가지 개발되었는데, 이 도구들은 크게 애착유형을 범주적으로 분류하는 것과, 연속적 차원에서 분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Main(2001)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면접법(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개발하여 애착유형을 자율형 또는 안정형(autonomous or secure), 거부형(dismissing), 몰입형(Preoccupied)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을 안정애착, 불안정-회피애착, 불안정-양가애착의 세 범주로 분류하는 3문항으로 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애착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네 범주의 애착유형으로 분류하는 애착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네 범주의 애착유형은 자기긍정-타인긍정의 안정형 애착, 자기부정-타인긍정의 몰두형 애착, 자기긍정-타인부정의 회피형 애착, 자기부정-타인부정의 두려움형 애착으로 분류된다. 위의 도구들이 각 범주의 특성을 결정한 후 그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해당 애착유형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면, Collins와 Read(1990)는 애착유형을 차원적으로 분류하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애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인 의존, 불안, 친밀을 확인하고, 이 요인의 조합에 따라 안정애착, 회피애착, 양가애착으로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18문항의 자기보고식 성인애착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도 연속적 차원에서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Hoeger와 Buschkaemper(2002)가 독일에서 개발하였다. Loew(1994)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한 애착의 세 가지 요인인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가 척도로 사용되었으며, 총 3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독일에서의 선행 연구 결과 독일성인에게서는 안정애착, 불안정-회피-단편 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정-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정-양가-단편 애착의 다섯 가지로 애착유형이 세분화되어서 확인되었다.

한국에서 연구된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유형을 조사하는 측정도구로 Hazan과 Shaver(1987)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질문지와 Collin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질문지(Adult Attachment Scale)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유형의 분포에는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같은 측정도구를 가지고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애착유형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복동(2000)은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RAAS)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을 연구하였는데, 애착유형의 분포가 Collins와 Read(1990)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안정애착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회피애착이 불안정-양가애착보다 빈번한 애착유형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같은 RAAS를 사용한 신노라(2000)와 김주연(2001)은 안정애착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이며, 불안전-양가애착이 불안전-회피유형보다 빈번한 애착유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애착 질문지를 사용한 정미나(2003)의 연구에서는 안정형 48.6%, 회피/거부형 8.6%, 집착형 28.6%, 회피/공포형 14.3%로 집착형이 안정형 다음으로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집착형 비율이 미국 대학생에서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성인의 애착유형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애착을 심리측정적인 면에서 유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차원적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성인의 애착유형을 세분화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독일에서의 연구 결과 독일성인에게서는 안정애착, 불안정-회피-단한 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정-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정-양가-단한 애착의 다섯 가지로 애착유형이 세분화되어서 확인되었다. 애착유형을 확인한 후 애착유형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와 애착유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인 상실의 경험여부, 부정적 요소뿐만이 아니라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성교제 경험, 결혼여부와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성인의 애착유형을 확인한 후, 남녀 성별의 차이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연령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가 다른지, 교육수준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부모 밑에서 성장한 것과 편부모에게서 성장한 것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출생순위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직업에 따라 애착유형

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성장지역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긍정적 경험인 이성교제 경험 및 결혼여부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와 부정적 경험인 상실의 경험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및 조사방법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배포한 442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자료 분석에 부적합한 3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43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74.3%가 여성이었고 25.7%가 남성이었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9세부터 61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1세였다. 여성의 직업은 대학생(34.1%)과 가정주부(30.9%)가 가장 많았고, 남성은 대학생(27.0%), 회사원(25.2%), 연구직(24.3%) 순이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독일에서 Hoeger와 Buschkaemper(2002)가 개발한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는 도입 문항을 제외하면 각 척도 당 10개의 문항으로 이뤄진 총 31개 문항의 5점 척도(1=전혀 맞지 않음에서부터 5=정확히 맞음)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문항의 내용은 배우자(연인)와 배우자(연인)관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및 개인적 특성의 분포

변인	구분	n(%)
성별	여자	323(74.3%)
	남자	112(25.7%)
나이	20대	206(47.5%)
	30대	162(37.3%)
	40대	52(12.0%)
	50대	13(3.0%)
	60대 이상	1(0.2%)
결혼여부	미혼	226(52.6%)
	기혼	202(47.0%)
	이혼	1(0.2%)
	사별	1(0.2%)
출생순위	첫째	135(32.8%)
	중간	151(36.7%)
	막내	117(28.4%)
	외동	9(2.2%)
성장가족	부모	373(88.8%)
	편부모	38(9.0%)
	부모 외 가족	8(1.9%)
	양육시설	1(0.2%)
학력	초 중학교	5(1.2%)
	고등학교	100(23.1%)
	대학교	327(75.7%)
직업	주부	96(22.7%)
	대학생	136(32.2%)
	연구, 교육	63(14.9%)
	자영업	50(11.8%)
	방송, 예술	14(3.3%)
	사회사업	12(2.8%)
	기타	51(12.1%)
성장지역	서울	162(41.9%)
	경기도	110(28.4%)
	강원도	15(3.9%)
	충청도	32(8.3%)
	전라도	32(8.3%)
	경상도	33(8.5%)
	이외 지역	3(0.8%)
이성교제 경험	현재 이성교제 중	106(46.7%)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음	69(30.8%)
	이성교제 경험이 없음	51(22.5%)
양육자와의 이별이나 상실경험	이별이나 상실경험 없음	296(70.1%)
	이별경험 있음	24(5.7%)
	상실경험 있음	102(24.2%)

대나 행동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배우자(연인)가 없는 사람은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에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범주적 차원이 아닌 연속적 차원에서 애착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세 개 척도의 조합을 가지고,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통해 분류된 집단을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Loew(1994)가 요인분석을 통해 애착의 세 가지 요인인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를 확인하였고, 이 세 요인이 설문지의 척도로 사용되었다. 각 척도가 직접적으로 애착유형을 설명하는 것이기 보다는 애착에 중요한 인식과 감정 및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각 척도의 조합을 통해 특정한 애착유형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독일에서의 선행연구에서 안정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정-회피-단편 애착, 불안정-양가-단편 애착, 불안정-양가-애정적인 애착으로 다섯 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으며 기존의 측정도구들보다 애착유형이 세분화되어 분류되었다(Hoeger & Buschkaemper, 2002).

설문지의 세 가지 척도인 열린자세(Oeffnungsbereitschaft), 수용문제(Akzeptanzproblem), 애정욕구(Zuwendungsbeduerfnis)를 살펴보면, 열린 자세는 배우자(연인)에게 자신을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세를 말하는데,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감정, 욕구에 대해 표현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용문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수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를 의미한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을 수용할지라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과 의구심을 나타낸다. 애정욕구는 배우자(연인)에 대한 친밀함과 사랑 받고자하

는 바람을 나타낸다. 열린자세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배우자(연인)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 자체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교적 만족한다. 이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안정애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수용문제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수용될 수 없다고 보고, 다른 사람도 자신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적인 자아상과 연관된 수용문제 척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긴장되어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감이 적은 관계를 경험한다. 수용문제 척도는 배우자(연인)관계에서의 만족도와는 부적상관이 있고, 특히 불안정-양가애착의 사람은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애정욕구는 특별히 애착에서 중요한 부분을 측정하는데, Hoeger와 Buschkaemper(2002)의 경험에 의하면 이중성을 나타내는 척도라서 높은 수치의 애정욕구는 안정애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안정-양가애착의 사람들에게서도 두드러진다.

독일어로 된 설문지를 저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후 한국어와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인 2세 연구원들의 재번역을 거침으로써 번역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설문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여 연구 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합치도, 변별도 등 자료 분석에서 각 척도가 동질성을 확보하고 다른 척도와 독립적인지를 고려하였으며 변별도가 낮고 다른 척도와의 상관이 고유 척도와의 상관보다 낮은 문항을 제외하는 등 문항분석을 하였다. 문항분석과 요인분

석을 통해 각 척도에서 6개의 문항이 선택되어 총 18개의 문항이 애착유형 및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에 사용되었다(부록 1, 부록 2).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열린자세 .73, 수용문제 .71, 애정욕구 .67로 나타나, 독일어 설문지의 열린자세 .88, 수용문제 .89 그리고 애정욕구 .77 보다 낮았다.

varimax 회전의 주성분 요인분석으로 요인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Single-Linkage와 Ward Methode)을 실시하였고 연구 변인들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카이자승)과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 과

애착유형의 분류

Single-Linkage를 통해서 439명 중 상이한 값을 나타내는 10명을 제외한 후 429명을 분석하였다. Ward Methode를 통해 애착이론에 따라 해석이 가능한 네 군집의 애착유형이 분류되었다. 표 3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Ward-Method를 통해 얻은 원점수를 k-means로 표준화한 점수이다. 표 3에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4에 군집별 빈도를 각각 제시하였다.

세 개 척도에 근거한 군집분석을 통해 네 가지의 애착유형이 한국 성인에게서 확인되었다(그림 1). Cluster 1은 높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를

표 3. 군집별 평균과 표준편차 (z-값, 임정선, 2007)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luster 1	.71	.63	-.60	.67	.73	.71
Cluster 2	-.24	.76	.88	.65	.76	.64
Cluster 3	.72	.70	-.96	.58	-.97	.65
Cluster 4	-.93	.75	.40	.80	-.65	.55

표 4. 4개 군집별 빈도 (N=429, 임정선, 2007)

	빈도	백분율%
Cluster 1	106	24.7
Cluster 2	113	26.3
Cluster 3	88	20.5
Cluster 4	122	28.4
합 계	429	100.0

보이는데 반해 낮은 수용문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안정애착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 애착 유형 중 24.7%가 이에 해당하였다. Cluster 2는 높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를 보이며 낮은 열린자세를 보이는데, 이는 불안정-양가-단편 애착이라고 할 수 있고, 26.3%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Cluster 3은 낮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에 비해 높은 열린자세 점수가 나왔다. 이것은 불안정-회피애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20.5%가 이 유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특징은 불안정-회피애착의 낮은 애정욕구에 비해 높은 열린자세를 나타내는데, 이에 대해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그들의 선행연구에서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이라고 명명하였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이 애착유형을 안정애착과 불안정-회피애착의 중간에 속한다고 보았으며, 실질적으로는

이 유형이 안정애착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조건부 안정애착이라고 명명하기를 제안하였다. Cluster 4는 낮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를 나타내는 불안정-회피 애착유형으로, 특별히 낮은 열린자세와 애정욕구는 불안정 회피애착 중 불안정-회피-단편 애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형에는 28.4%가 해당하였다.

애착유형과 변인들과의 관계

변인들에 따라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카이자승)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성별, 출생순위, 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는지 또는 편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는지, 교육정도, 직업, 성장지역 등과 애착유형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적으로 애착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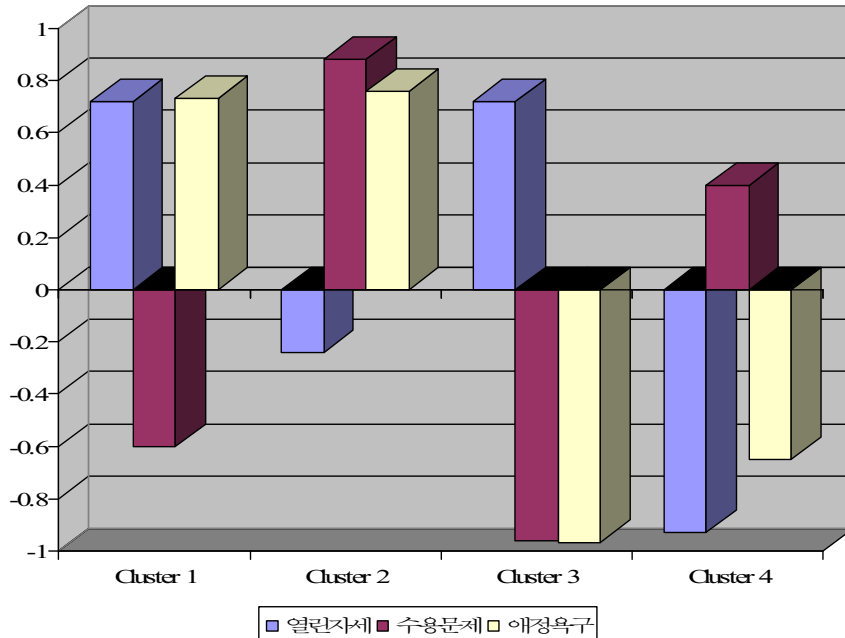


그림 1. 네 개 군집의 평균 척도값 (z-값, 임정선, 2007)

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와의 이별이나 죽음으로 인한 양육자의 상실경험과 애착유형간의 관계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 결혼여부, 이성교제 경험여부는 애착유형의 분포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5는 네 가지 애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나이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한 후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불안정-양가애착의 평균연령은 28.9세로 가장 낮은 연령이었으며, 불안정-회피 협조적인 애착의 평균연령은 33.4세로 가장 높은 연령이었다(표 6). 표 7은 결혼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여준다($\chi^2 = 23.71, df = 6$). 미

혼인 경우에는 불안정 양가애착과 불안정-회피-단힌 애착이 기혼인 경우보다 많았고, 기혼인 경우는 불안정-회피 협조적인 애착과 안정애착이 미혼인 경우보다 많았다. 이혼과 사별을 한 조사대상자는 각각 한명으로 인원이 너무 적어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 8은 이성교제 경험 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분포를 보여준다($\chi^2 = 23.94, df = 6$). 현재 교제 중인 조사대상자와 교제 경험이 있었던 조사대상자는 불안정-양가애착 유형에 가장 많이 속하는 반면, 교제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불안정-회피-단힌 애착유형에 가장 많이 속하였다.

표 5. 애착유형과 나이의 분석(ANOVA)과 사후검증

SS	df	MS	F	p	사후검증(Scheffe)
1004.359	3	334.789	4.718	.003	불안정-양가 < 불안정-회피(협조)

표 6. 애착유형과 나이 (N=423)

	안정	불안정-양가	불안정-회피(협조)	불안정-회피(단힌)
n(%)	106(25%)	109(26%)	87(20%)	121(29%)
평균	31.50	28.90	33.37	30.73
표준편차	8.47	7.76	8.95	8.63

표 7. 애착유형과 결혼여부의 분포 (N=420)

	안정	불안정-양가	불안정-회피(협조)	불안정-회피(단힌)
미혼	47(21%)	77(35%)	34(15%)	64(29%)
기혼	58(30%)	34(17%)	52(26%)	54(27%)

표 8. 애착유형과 이성교제 경험의 분포 (N=223)

	안정	불안정-양가	불안정-회피(협조)	불안정-회피(단힌)
현재 이성교제 중	29(29%)	31(31%)	19(19%)	21(21%)
이성교제 경험이 있음	13(18%)	30(42%)	12(17%)	16(23%)
이성교제 경험이 없음	5(10%)	16(31%)	4(7%)	27(52%)

논 의

한국어로 번역된 문항은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시의 합치도, 변별도 등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고, 그 결과 각 척도에서 6개의 문항이 선택되어 총 18개의 문항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번역된 문항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는 열린자세 .73, 수용문제 .71 그리고 애정욕구 .67로 독일 설문지에서의 열린자세 .88, 수용문제 .89 그리고 애정욕구 .77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 설문지가 독일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척도의 문항들이 함의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를 개발한 Buschkaemper(1998)는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후속연구에서 애착유형을 연구할 때, 각 척도에 속한 문항들이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해당 척도에 부적합하게 나타날 경우, 각 척도에서 적합한 문항을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음을 그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연구에서 사용한 30 문항보다 적은 18 문항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의 애착유형이 확인되었으며, 제외된 문항들을 수정 보완한다면 한국에서도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분화된 애착유형 모두를 확인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독일 성인에게서는 안정애착, 불안정-양가-애정적인 애착, 불안정-양가-단힌 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그리고 불안정-회피-단힌 애착으로 다섯 가지의 애착유형이 분류 되었으나 (Hoeger & Buschkaemper, 2002), 한국 성인에게

서는 안정애착, 불안정-양가-단힌 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 불안정-회피-단힌 애착 등의 네 가지의 애착 유형이 분류되었다. 안정애착의 경우, 높은 열린자세와 뚜렷한 애정욕구를 나타냈으나, 수용문제는 크지가 않았다. 불안정-양가애착의 특징은 높은 수용문제와 강한 애정욕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열린자세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낼 경우, 불안정-양가애착의 하나인 불안정-양가-단힌 애착으로 분류되고, 열린자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낼 경우, 불안정-양가-애정적인 애착으로 분류될 수 있다(Hoeger & Buschkaemper 2002).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양가애착 중에서 불안정-양가-단힌 애착만이 확인되었다. 불안정-양가-단힌 애착 유형의 사람은 친밀해지고 사랑받고 싶은 강한 바람은 있으나, 상대방을 믿고 자신을 개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불안정-회피애착은 두 개의 애착유형으로 세분화되어 확인되었다. 불안정-회피-단힌 애착유형은 높은 수용문제와 낮은 열린자세 및 애정욕구를 나타내며,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까움과 친밀함을 피하는 방어적이고도 회피적인 모습을 보인다.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은 수용문제와 애정욕구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나, 열린자세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Hoeger와 Buschkaemper(2002)는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이 안정애착과 불안정-회피애착의 중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안정애착의 한 부분임을 시사하며,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을 조건부 안정애착이라고 부르기를 제안하였다. Buschkaemper(1998)에 의하면 '배우자(연인)관계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는 애착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 설문지에서 불안정-

회피-협조적인 애착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다른 기존의 설문지에서는 안정애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은 안정애착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의 열린자세와 낮은 수치의 수용문제를 보이는데, 차이점은 애정욕구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에서 높은 열린자세 점수에 비해 낮은 애정욕구 점수를 나타내는 것은 애착인물에 대한 적응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아동기의 애착인물과의 관계에서 애정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애착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애착에 대한 중요한 감정이나 욕구가 있고 타인의 애착욕구에는 적절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자신의 애정에 대한 욕구는 타인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인들 중 이러한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요구사항이 적거나 또는 친절한 사람들로 간주된다 (Hoeger & Buschkaemper 2002). 이들은 사회관계 안에서 받는 사람이 아닌 주로 주는 사람에 속하고, 정작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정애착과 더불어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조건부 안정애착)이 한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정확히 표현하고 전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태를 먼저 배려하는 하는 것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장려되고 교육되기 때문이다.

애착유형과 관련변인들과의 분석에서 애착유형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결혼여부와 이성교제 경험여부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불안정-양가애착과 불안정-회피-단편 애착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분포되었으며, 안정애착,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조건부 안정애착)은 비교적 높은 연령층에 분포되었다. 특히 큰 차이는 불안정-양가 애착과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의 나이 차이로 평균 4.5세로 나타났다. 10대부터 80대 말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Zhang & Labouvie-Vief, 2004)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애착유형 중 안정형과 거부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몰두형의 비율은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몰두형의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것은 애착유형이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애착유형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혼여부도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미혼인 경우에는 불안정-양가애착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으로 나타났고, 기혼인 경우에는 안정애착과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조건부 안전애착)의 비율이 높았다.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분류할 경우, 기혼의 경우 안정애착(56%)이 가장 빈번한 애착유형이며, 다음으로 불안정-회피-단편 애착(26%), 불안정-양가애착(17%) 순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미혼인 경우에는 안정애착(36%)과 불안정-양가애착(35%)이 거의 같은 비율로 분포하며, 그 다음으로 불안정-회피-단편 애착 유형(29%)으로 나타나,

기혼인 경우에 안정애착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미혼인 경우에는 불안정애착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 교제 경험도 애착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현재 교제 중인 조사대상자와 교제 경험이 있었던 조사대상자는 불안정-양가애착 유형에 가장 많이 속하는 반면, 교제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경우에는 불안정-회피-단편 애착유형에 가장 많이 속하였다. 불안정-회피-협조적인 애착을 안정애착으로 분류할 경우, 현재 교제 중인 조사대상자는 안정애착(48%)에 가장 많이 속하였고 불안정-양가애착(31%), 불안정-회피-단편 애착(21%) 순으로 나타났다. 교제 경험이 있었던 조사대상자의 경우, 불안정-양가애착(42%)에 가장 많이 속하였고, 안정애착 (35%), 불안정-회피-단편 애착(23%) 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교제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불안정-회피-단편 애착(4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안정-양가애착 (35%), 안정애착(23%) 순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에 속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불안정-회피 단편 애착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적고 그에 따른 경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부정적인 경험인 상실의 경험여부와 애착유형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의 발생 그 자체보다는 위험요인의 발생 빈도와 환경적인 요인들이 애착유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결혼이나 이성교제 경험도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면서 인간적인

성숙과 통합을 유도하여, 안정애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고 설문지 문항이 축소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애착유형을 차원적으로 분류하는 설문지를 통해 네 가지의 애착유형을 확인하면서 애착유형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긍정적인 경험과 애착유형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앞으로 성인의 애착유형에 관한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를 바라며,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2000). 성인 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수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선 (2007). 한국과 독일 성인의 애착유형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39-254
- 정미나 (2003). 성인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1991). *Attachments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London and New York: Tavistock/Routledge.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ierhoff, H. W. & Grau, I. (1999). *Romantische Beziehungen*. Bern: Verlag Hans Huber.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Dt. (1975): *Bindung*. Muenchen: Kindler. (1984) Frankfurt am Main: Fischer TB.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Dt. (1976): *Trennung*. Muenchen: Kindler TB.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Dt. (1983): *Verlust*. Muenchen: Kindler. Fischer TB.
- Bowlby, J. (1995). *Elternbindung und Persoenlichkeitsentwicklung: Therapeutische Aspekte der Bindungstheorie*. Heidelberg: Dexter Verlag.
- Braeutigam, W. (1991). Bindung und Sexualitaet in psychoanalytischen Theorien und in der Praxis. In *Psychotherapeutische Psychosomatische Medizinische Psychologie*, 41, 295-305.
- Bretherton, I. (2001). Aktuelle Studien zur Bindung. In Gloger-Tippelt, G. (Hg.), *Bindung im Erwachsenenalter*. Bern: Verlag Hans Huber.
- Buschkaemper, S. (1998). *Entwicklung eines Fragebogens zur Erfassung des Bindungsstils erwachsener Personen*. Universitaet Bielefeld: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remmer-Bombik, E. (1997). Innere Arbeitsmodelle von Bindung. In Spangler, G. & Zimmermann, P. (Hg.), *Die Bindungstheorie*. Stuttgart: Klett-Cott.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eger, D. & Buschkaemper S. (2002). Der 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 (BFPE): Ein alternativer Vorschlag zur Operationalisierung von Bindungsmustern mittels Fragebogen. *Zeitschrift fue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23(1), 83-98.
- Holmes, J. (2002). *John Bowlby und die Bindungstheorie*. Muenchen; Basel: Reinhardt.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Loew, I. (1994). *Erwartungen von Patienten stationaerer Gruppenpsychotherapie an die therapeutische Beziehung*. Universitaet

- Bielefeld: Unveroeffentlichte Diplomarbeit.
- Main, M. (2001). Aktuelle Studien zur Bindung. In Gloger-Tippelt, G. (Hg.), *Bindung im Erwachsenenalter*. Bern: Verlag Hans Huber.
- Mikula, G. & Leitner, A. (1998). Partnerschaftsbezogene Bindungsstile und Verhaltenserwartungen an Liebespartner, Freund und Kollegen. *Zeitschrift fuer Soziologie*, 3, 213-223.
- Zhang, F. & Labouvie-vief, G. (2004). Stability and fluctuation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a 6-year peri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419-437.
- Zimmermann, P., Becker-Stoll, F., Grossmann K., Grossmann, K. E., Scheuerer-Englisch, H. & Wartner, U. (2000). Bindungsentwicklung bis zum Jugendalter.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7(2), 99-117.

논문접수일: 2007년 11월 7일

수정논문접수일: 2008년 4월 16일

게재결정일: 2008년 5월 11일

Relations of Adults' Attachment Type with Marriage, Experience of Dating, Experience of Loss

Jeong-Sun Lim
Keimyu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surveyed the distribution of adults' attachment types using the questionnaire (Bielefelder Fragebogen zu Partnerschaftserwartungen) on expectation for spouse (Partner) relation developed by Hoeger and Buschkaemper (2002) in Germany, and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attachment type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experience of loss that is a risk factor affecting the change of attachment quality, and experience of dating and marriage that may work as negative factors or as positive factors. The questionnaire mentioned above is a tool that classifies adults' attachment type as a continuous variable, so it can subdivide attachment types in detail rather than limiting them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r types of adult attachment were identified, which were secure attachment; insecure-ambivalent attachment; insecure-avoidant-cooperative attachment; and insecure-avoidant-closed attachment. The distribution of the identified attachment typ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and experience of dating. That is, the percentage of security attachment was higher in those who were older, those who were married, and those who had experiences of dating.

Keywords : attachment, adults' attachment type, experience of dating, experience of loss

부록 1. 배우자(연인)관계에 대한 기대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 (N=439, 임정선, 2007)

문 항	열린 자세	수용 문제	애정 욕구
2.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764		
7.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나의 감정(느낌)을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다	.743		
30. 나는 나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나의 느낌, 바램, 욕구에 대해서 비교적 쉽게 내 배우자(연인)와 이야기 할 수 있다.	.721		
15. 나는 내 배우자(연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524		
23. 그(그녀)가 내 배우자(연인)라 할지라도, 많은 일을 나 혼자만이 간직한다.	.477		
10. 나는 내 배우자(연인)와 이야기 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반적인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373		
17. 내 배우자(연인)가 나에게 사랑스럽게 대하면 내 배우자(연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655	
3. 내 배우자(연인)가 나를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642	
28. 나는 내 배우자(연인)와의 관계에서 심한 감정의 변화를 자주 경험한다. (친밀감과 낯설음, 신뢰와 심한 질투)		.635	
20. 내게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배우자(연인)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한번쯤 들 것도 같다.		.525	
31. 내 배우자(연인)가 나를-나의 모습 그대로-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509	
9.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배우자(연인)가 알게 된다면 나와 거리를 둘까봐 걱정이 된다.		.477	
14. 내 배우자(연인)와 떨어져 있으면(여행, 사업상 등) 불안하고 신경이 곤두선다.			.637
16. 내 배우자(연인)와 헤어지면 내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다.			.626
22. 우리가 같이 있지 않아도, 내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내 배우자(연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다.			.618
26.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어야 할 때도 나는 헤어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616
18. 솔직히 내 배우자(연인)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내고 또 나만을 위해 신경을 써 준다면 가장 좋겠다.			.591
11. 내가 굉장히 힘들 때면, 내 배우자(연인)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나에게 신경을 써 주는 것에 거의 의지한다.			.535
요인들의 변량	15.1%	14.8%	13.6%

부록 2 척도분석 (N=439)

	열린자세	수용문제	애정욕구
문항 수	6	6	6
변별도 평균	.48	.44	.40
척도 평균	3.60	2.42	.37
표준편차	.72	.76	.74
신뢰도	.73	.71	.67
척도상관			
수용문제	-.48	.16	
애정욕구	.22		